

# 한국 언론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연구

##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Discussion of Decolonization in Communication Studies in Korea

김정근(Jung-gun Kim)\* · 김영기(Young-ki Kim)\*\*

### 〈 목 차 〉

- |                                |                          |
|--------------------------------|--------------------------|
| I. 연구의 기원 - 문헌정보학에서의<br>현단계 연구 | 담론에 관한 초록의 생산            |
| II. 연구의 발전 - 사회학에서의 탈식민성 담론    | IV. 한국 언론학 분야 탈식민성 담론 개관 |
| III. 연구의 결과 - 사회과학에서의 탈식민성     | V. 한국 언론학 분야 탈식민성 담론 초록  |

### 초 록

필자들은 이 논문에서 자신들이 문헌정보학 내부에서 '현단계 연구'의 발전에 참여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과학의 여러 하위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탈식민성 담론의 현상에 주목하게 된 과정을 추적한다. 언론학을 사례로 삼아 탈식민성 담론의 현단계를 밝힌다.

### Abstract

This essay traces the paths in which the writers have involved themselves in developing 'the studies of the present developmental stage' in their own field of studies, and by extension have become aware of the widespread presence of the discussion of decolonization in fields of social sciences. The present essay takes communication studies for a case of an indepth analysis of the effort toward academic self-reliance.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 I. 연구의 기원 - 문헌정보학에서의 현대적 연구

1990년대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80년대식의 거대이론의 퇴보로 인한 이념적 지표의 상실로 특징 지워진다. 이러한 혼돈과 상실의 시대에 '탈근대'(post-modernity)와 '정보사회'라는 담론이 그 지적 공허의 틈바구니를 메우며 우리 사회를 휘감는 대표적인 담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탈근대라는 말은 1990년대 벽두부터 우리 학계의 식자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가더니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그라진 느낌이다. 그렇지만 정보사회라는 말은 점점 더 그 위세를 더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식사회'라는 말이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탈근대가 근대기획의 보류와 실패를 논하던 그 시점에, 그리고 '정보'가 사회적 가치의 척도가 되어버린 듯한 이 시기에 엉뚱하게도 우리는 근대기획의 핵심 개념의 하나였던 '탈식민성'이라는 화두를 붙들고 90년대를 살아왔다.<sup>1)</sup> 탈식민성은 우리가 90년대와 그 이후를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공동의 벽으로 다가왔으며, 이 글은 우리가 탈식민성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자성적 기록이자 그 결과의 일부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이 땅의 도서관 문제를 생각하고 글을 써 오면서 겪게 된 체험과 성찰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본질은 학술논문과 현장의 관계, 즉 학문의 사회적 함의와 그 실천성에 대한 고민이었다.

우리는 그 동안 도서관 현장의 사서로서, 또는 강단의 연구자로서 활동해 오면서 행위의 지표로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서양을 그리워하며 서양을 따르고자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무런 의심이나 거리낌도 없이 서양을 준거의 틀로 삼았던 것이다. 말할 때도 그랬고 글을 쓸 때도 그랬다. 그러다 보니 우리 문제에 대한 천착과 분석은 자연 등한시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구자로서 또는 실무사서로서 우리 도서관 현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말하자면 식민자(the colonizer)의 그것이었다. 우리 현장을 식민의 대상(the colonized)으로 보았다. 직접 경험을 통하여 익힌 서양, 또는 문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1) 여기서 '우리'는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진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로 이루어진 '공동작업실' 멤버들을 말한다. 공동작업실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연구에는 그 좌장격인 김정근 교수를 비롯하여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이수상, 류준정, 김영기, 이용재, 김종성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이미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그 과정을 마치고 각자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펼쳐보이고 있다. 한편 이들의 활동은 여러 매체로부터 과도한(?)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강준만, 「한국 학문의 희망, 김정근 교수팀」, 《월간 인물과 사상》 제1권 제3호(1998. 7). 59-69쪽  
정재서·임경순·김현·김종성·김성기 좌담, 「正典 없는 시대 다시 시작하는 공부 - 우리 공부의 길을 찾아서」, 《현대사상》 1999. 9. 19-63쪽  
배운기, 「일그러진 학문풍토에 도전하는 문헌정보학 게릴라들」, 《현대사상》 1999. 9. 183-199쪽  
이광우 기자, 「외국색채 벗기고 창의성 뿜자 -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공동작업실」, 《부산일보》 1999. 10. 20

익힌 서양을 전달하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의 임무로 삼았다.

우리의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쯤부터였다. 그것은 변혁을 추구하던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그것은 도서관 현장은 낙후와 저발전의 나락을 헤매며 신음하고 있는데 담론은 그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고급스러우며 경쾌하고 즐겁기까지 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도서관 현장에 적합한 담론이 아니지 않는가. 이것은 발전된 도서관 현장을 가진 서양에나 맞는 언어가 아닌가. 자세히 보면 이것은 걸만 한국어일 뿐 내용은 예누리없는 서양의 언어 그대로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에게 이 언어와 표현에 맞아떨어지는 도서관 현장이 어디 있는가. 이 의문은 연구자의 양심에 화살로 와 박혔다.<sup>2)</sup>

그래서 연구자로서 우리가 시도하게 된 것이 서양 도서관 덜 쳐다보기, 대신 우리 도서관 더 쳐다보기, 서양문헌에 덜 매달리기, 대신 우리 문헌에 더 매달리기였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 현장이라고 해 보아야 별로 쳐다볼 무엇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지난 시기 우리 사회의 군사 문화 분위기와 산업화 과정에서 정책입안자나 일반시민의 의식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소외의 땅일 뿐이었다. 그래도 연구자로서 우리는 형벌의 땅과도 같은 우리 도서관 현장이 연구의 중심에 들어와야 하고 그것이 출발지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어렵פות이, 나중에는 확실하게 하게 되었다. 일단 방향을 그렇게 선회하고 보아야 언젠가는 끝이 보일 것 같았다. 서양이 중심에 있고 출발점이 되는 한 그와 같은 연구에는 끝이 보일 날이 없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서양을 보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 문헌이라고 해 보아야 그것 또한 불품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양도 워낙 적어 탈이 없지만, 무엇보다 연구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창의성(originality)이 들어간 글토막을 찾기가 좀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참고문헌으로 활용하려고 검토를 해 보면 제목은 근사하게 붙어 있으나 내용이 서양 문헌을 요령껏 비슷하게 짜깁기해 놓은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야말로 논문을 위한 논문이요, 서양의 대가들을 받들기 위한 논문이었다.<sup>3)</sup>

낙후한 현장, 거기다 참고문헌마저 빈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다운 연구가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연구자의 시각을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헌세계로 이동시켜 맞춘다고 했을 때 바로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론이었다. 어떻게 참고문헌을 구하며 어떤 연구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추진하여 그나마 현실개척에 의미있는 결과를 생산해 내느냐의 문제였다. 여기서 나와 주변의 젊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해낸 것이 ‘현단계 연구’(studies of the present developmental stage)라고 하는 것이었다.<sup>4)</sup> 그것은 쉽게 말해 눈앞에 있는 현

2) 이 부분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기술은 다음을 참조하면 된다.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한울, 1995), 5-24쪽.

3) 김정근 엮음,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한울, 1996), 3-6쪽.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민음사, 1996)도 보라.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1권 제 1호)

실을 그대로 기술해 내자는 것이었다. 현실 속의 드라마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폭로해 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의 문제 자체 속에 함장되어 있는 해답이 저절로 떠오르게 하는 것이었다.<sup>5)</sup> 그것은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형식을 띠는 이른바 '과학적' 방법과는 거리가 있었다.

현단계 연구는 구조적으로 몇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이었다. 우선 태생적으로 그것은 우리 현장에서 논제를 건져 올리도록 했다. 처치과정으로는 주로 질적방법을 취했다. 왜냐하면 다양한 드라마를 품고 있는 현장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기에는 연구자의 통찰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으며 특수성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질적기법이 안성맞춤이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이미 생산되어 있는 연구문헌들에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현장에 대한 관찰이라던가 인터뷰 기법은 연구자가 자료확보를 위해 의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 수밖에 없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는 문체 문제였다. 우리 현장의 현단계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어 그 속에 배태되어 있는 드라마를 노출시키기에는 이른바 간결한 논문문체는 부적절했다. 복잡한 내용을 담아내는 데는 복잡한 그릇이 필요했다. 그래서 다양한 문체의 실험이 요구되었다. 이 대목에서 '잡스러운'<sup>6)</sup> 글쓰기라는 기법이 채택되기도 했다.

우리는 현단계 연구를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렀다. 우리식, 주체적, 자아준거적, 실천적 따위의 수식어를 붙여 부르기도 하였다. 우리는 도서관 현장을 대상으로 현단계 연구를 직접 생산해 내기도 하고, 그것을 주제화시켜 글을 쓰기도 하였다.<sup>7)</sup>

우리가 다른 사회과학의 제분과학문에서 일고 있는 '탈식민성 담론'에 주목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문헌정보학에서의 '현단계 연구' 과정에서였다. 우리는 어느덧 타분야에서의 흐름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학문적 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다.

- 
- 4) 지난 10여년간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젊은 연구자들로 구성된 '공동작업실'을 중심으로 진행된 일련의 논문작업에 주목하기 바란다. 김정근, 위의 책(1996)에 실린 논문들도 참조하라.
  - 5)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부분을 인용하는 '사회적 사실기술'이라고 하였다. 그의 「독창적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사회학》 제28집(1994 봄), 1-15쪽 참조.
  - 6) 이 표현은 김영민에게서 유래한다. 그의 「글쓰기, 복잡성의 철학 : 일리(一理)의 해석학을 위하여」,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12호(1994년 봄), 77-104쪽을 참조하라. 김영민 글쓰기 철학의 전모를 보려면, 김영민, 앞(1996)의 책을 보라.
  - 7) 참고로 우리 자신이 현단계 연구를 주제화하여 발전시킨 글의 사례를 일부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근·김영기,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도서관학논집》 제22집(1995), 27-59쪽; 김정근·이용재, 「한국문헌정보학연구와 문화기술적 방법」, 《도서관학논집》 제24집(1996 여름), 107-161쪽; 김정근·김종성, 「현단계 학교도서관 문제에 관한 연구전략」,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집(1997. 9), 23-51쪽; 김정근·이수상, 「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의 발전전략」,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1호(1997. 3), 125-151쪽; 김정근, 「한국의 문헌정보학은 대화의 학문인가, 독백의 학문인가?」, 《도서관계》(1997. 1-2), 3-7쪽; 김정근, 「도서관 담론에 나타나는 '가벼움'의 기원에 대하여」, 《도서관문화》(1997. 7-8), 22-29쪽; 김정근,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실천적' 글쓰기란 무엇인가?」, 《열린지성》(교수신문사) 제3호(1997 겨울), 83-99쪽.

## II. 연구의 발전 - 사회과학에서의 탈식민성 담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우리들의 처음의, 그리고 제일차적 관심은 문헌정보학의 내부문제에 있었다. 지금 와서 범주화했을 때 ‘현단계 연구’라고 불러볼 수 있는 것의 초기단계에 매달리고 있을 때만 해도 관심의 표적은 전적으로 도서관 연구에 있었다. 그런데 ‘현단계 연구’를 방법론적으로 확립해 나아가는 데는 장애요인이 있었다. 무엇보다 다른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에게 이 방법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주위에서 좀체 믿어주고 밀어주려는 기색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다.

우선 우리의 연구행태를 지지하는 장치를 구해본 것은 역설적이게도 서양의 문헌정보학 문헌이었다. 이 시도는 곧바로 실패로 끝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새삼스레 ‘현단계 연구’ 따위를 주제화시켜 말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었다.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사실과 언어 사이에는 아무런 괴리와 소외 현상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우리와는 다른 몇 차원 높은 수준에서 현장과 언어를 일치시켜 놓고 있었다. 어느 의미에서 그들은 오래 전에 이미 그들 나름의 현단계 연구를 일상화시켜 놓고 있었다.

이와 같은 관련 속에서 다음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된 것이 국내의 다른 사회과학 분야였다. 그 어떤 유사한 시도나 노력이 없을까 하고 이곳 저곳을 탐색해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바로 꼭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슷한 움직임이 여기 저기 감지되었다. 교육학에도 있고 행정학에도 있었다. 사회학에도 있고 경제학에도 있었다. 정치학에도 있었다. 이런 식이었다. 이종각, 박동서, 김진균, 변형운, 문승익, 윤근식 등의 이름이 다른 이름들과 함께 눈에 띄었다. 그 뒤 우리는 법학, 사회복지학, 언론학, 여성학, 인류학 분야도 탐색해 보았다. 거기서 우리는 배종대, 임종대, 강준만, 조혜정 등을 발견했다. 이들은 학문의 토착화의 이름으로, 또는 한국화의 이름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파고 들어가 볼수록 그 움직임은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뿌리가 깊은 것이었다.<sup>8)</sup>

그래서 우리는 일단 문헌정보학 내부의 불을 끄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신생의 도서관 연구를 하는데 전통이 오랜 타분야의 성과를 원용하고 나서니 우선 내부에서 쓸데없이 입을 대는 일이 없어졌다. 적어도 양성적 방해꾼들은 사라졌다. 차츰 현장의 실무사서진과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호응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우리는 자신을 얻었다. 1990년대를 거의 다 넘기고 있는 지금도 대체로 이와 같은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다.<sup>9)</sup>

8) 우리가 생산한 초록을 참조하면 더욱 실감이 갈 것이다.

9) 김정근, 앞의 책(1996), 6쪽.

이처럼 처음에는 우리 자신의 전공영역 안에서 '현단계 연구'를 공고히 해가는 과정에서 타 학문 분야를 기웃거리게 된 것이다. 일정한 성찰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또다른 국면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헌정보학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회과학 분야를 관류하는 우리 시대의 한 큰 흐름이었다고 여겨진다. 한국사회과학에 있어서 '탈식민성 담론'이라고 범주화해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었다.<sup>10)</sup>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동안 고립된 상태에서 내부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추진해 왔던 '현단계 연구'가 결국 타분야에서의 학문적 주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들과 서로 그다지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어떤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연대감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과학의 제하위 분야에서의 개별적 움직임이 서로를 발견하여 자각된 연대 속에서 맺어졌을 때 그것은 이 땅에서 사회과학의 유용성을 한층 끌어 올리는 계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 연대의 가능성을 떠올리며 그 속에서 이미 엄청난 힘을 보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생각도 가져 보았다. 우리가 연대의 힘을 보는 데는 문헌정보학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목록, 색인, 초록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목록자(cataloger), 색인자(indexer), 초록자(abstracter)로서의 태생적 감각과 기민성이 우리로 하여금 평소에 도서관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하여 늘 그렇게 했듯이 이 경우에도 사회과학의 제 분과학문을 묶어줄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 Ⅲ. 연구의 결과 - 사회과학에서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초록의 생산

이제 우리는 문헌정보학의 테두리를 벗어나 한국사회과학 전반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반란'의 몸짓들을 주목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발굴하여 하나의 틀 속에서 조직해 내기로 하였다. 이 때 우리는 문헌정보학의 주무기 가운데 하나인 초록(abstract)의 기법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작업의 화두는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연구'였다. 우리는 이 초록작업을 통하여 해방 후 한국사회과학이 식민지 학문의 틀을 벗어나 학문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보해내는 전과정을 가능하다면 망라적으로 드러내기로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사회과학이 한국적 사회현실을 이해하고 규명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명

10) '탈식민지 시대론'을 가장 선구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은 조혜정이었다. 그의 전모를 보려면,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또하나의 문화) 제1권, 바로 여기 교실에서(1992); 제2권, 자자 선 자리에서(1994); 제3권, 하노이에서 신촌까지(1994)를 참조하라.

실상부한 '한국적' 사회과학으로서의 그 역할과 지위를 성취해 가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러한 담론구성이 미약한 분야에 자극과 격려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이제 우리 눈에는 일의 다음 순서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움직여야 했다. 우리들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작업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우리는 한국 사회과학의 하위분야 가운데 정치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언론학, 교육학, 여성학, 인류학, 문헌정보학 분야를 작업대상으로 잡았다. 작업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 탈식민성 담론의 내용과 그 범위를 정한다.**

- ① 글쓰기(논문쓰기)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
  - 주체적으로 식민지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고민이 있을 것
  - 방법과 자료적인 고민이 있을 것
  - 가능하다면 문체의 고민이 있을 것
- ② 주류에서 벗어나고 그것에 대항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 비판적, 제3세계적 관점을 지닐 것
  - 현장중심의 해결노력, 학술적 운동의 성격을 띠 것

**2) 주요키워드를 설정하여 한국사회과학의 하위분야별로 관련된 핵심문헌들을 조사한다.**

- ① 탈식민성(탈식민지화), 토착화(토착이론, 토착학문), 한국적(화), 자이준거적, 특수성과 보편성, 주체성(주체적 학문), 질적연구(현상학적 연구, 해석학적 연구) 등을 주요 키워드로 한다.
- ② 탈식민성 담론을 '주제화'시킨 문헌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3) 핵심문헌들을 분석하여 각 하위분야별 탈식민성 담론의 기초적 유형과 특성을 파악한다.**

- ① 분야별 관련 연구단체들의 동향과 전문연구지를 조사 분석한다.
- ② 분야별 주요 연구인물을 밝혀낸다.

**4) 각 하위분야별 인용분석을 시도하여 망라적으로 문헌들을 추적조사한다.**

**5) 위의 과정을 통해 선정된 담론을 읽어내어 선정범위에 합당한지를 최종 확인하고, 합당한 경우에는 초록을 작성한다. 초록은 네 영역으로 구성한다.**

- ① 제1영역(기술부) : 서지사항

- ② 제2영역(도입부) : 해당연구의 전체적 내용을 요약. 특히 탈식민성 담론으로 선정된 이  
유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기술
- ③ 제3영역(설명부) : 해당연구의 본문과 결론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 ④ 제4영역(비평부) : 해당연구에 대한 비평적 내용(긍정적 또는 부정적 내용)을 기술

이 작업을 위해 우리는 이미 확보하고 있던 문헌을 재검토하는 한편, 부산대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국내의 여러 도서관들을 돌며 새로운 자료발굴을 위하여 뛰었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과정에서 파악된 분야별 전문연구자들을 선정하여 그들을 방문하여 작업의 타당도를 가능한 한 검토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초록작업이 완성되는 데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만 5년이 걸렸다.

우리는 위에서 주변의 연구자들이 그 동안 전개해온 작업의 자초지종을 소개하였다. 요컨대 우리는 우리나라의 동남부 지역에 위치하면서 그 곳으로부터의 관찰과 토론에 기초한 의문을 통하여 문헌정보학 내부적으로 '현단계 연구'를 발전시키는 한편, 그것의 연장선에서 사회과학 제하위 분야에서의 탈식민성 담론들을 초록의 형식으로 가공해 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성과가 앞으로 우리 사회과학의 제분과학문 내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탈식민성 담론 형성자들간의 연대를 가능케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결과의 일부를 여기에 소개한다.

#### IV. 한국 언론학 분야 탈식민성 담론 개관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학은 대학에서는 '인기학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언론학 인구'역시 폭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학의 정체성의 문제로 돌아오면 심각한 혼돈상태에 빠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것은 언론학 관계 학과와 학회의 무원칙하고 다양한 명칭과,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언론학 연구와 교육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문제에 대한 학계차원의 해답을 유보한 채 언론학의 명칭문제라든가 학적 체계 문제, 교육 프로그램 문제, 산학협동문제, 언론학의 토착화문제 등을 논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 언론학회가 우리나라 언론학의 첫 번째 쟁점과 과제로서 언론학의 정체성 확립을 들고 있는 것<sup>11)</sup>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언론학의 탈식민담론 분석에 앞서 우선 그 전개과정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언론학 연구는 저널리즘 관련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매스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로 확장되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커뮤니케이션 현상 전반으로 연구관심을 확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언론학 연구의 주된 관심은 선진국의 언론현상과 이론을 소개하는데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언론현상을 다양한 방법론으로 연구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 신문학의 학술적 연구와 외국의 신문학 이론의 도입 및 체계화가 시작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의 일이지만, 이와 같은 노력의 발단은 그 훨씬 전인 1928년 독일에서 신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였던 김현준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 이후 한국인으로서 해방 전에 대학에서 신문학을 전공하였던 사람들로써 광복산, 박유봉, 이해창 교수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언론학 교육은 일본 최초의 신문학과인 소피아대학(上智大學)<sup>12)</sup>을 졸업한 광복산이 194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적 훈련기관인 조선신문학원(서울신문학원)을 설립한데서 비롯된다. 조선신문학원은 전문 언론인의 양성을 위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15기에 걸쳐 여기서 배출된 약 천 여명의 졸업생들은 한국언론계의 중진으로 성장하였다. 그 이후 1954년 정부로부터 인가를 얻어 독립된 신문학과가 홍익대학교에 최초로 개설되었지만 1961년 대학 정비령에 의해 없어졌으며, 1957년의 중앙대학교가 그 두 번째다. 이러한 학과의 창설자들은 주로 일본의 소피아 대학과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초기의 한국 신문학자들은 독일식의 일본 교육이나 독일교육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언론학은 1960년대 들면서 독일의 신문학이나 공시학과는 학문적 관심에 있어서 구별되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귀국하여 교단에 자리잡기 시작하고 학과와 연구소들이 대학에 창설되기 시작하면서, 외면적 폭을 확대하고 질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1963년 서울대학교의 신문연구소의 창립과 더불어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일본 및 독일 편향적이던 한국의 언론학은 미국중심의 커뮤니케이션학과 접목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사회과학적 패러다임 속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어서 1967년 서울대학교에 신문대학원이 설립되면서, 김규환을 중심으로 한국 신문학을 사회과학의 하나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실무교육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언론학 교육은 이때까지만 해도 독일의 공시학 전

11) 서정우, 「우리나라 언론학의 어제와 오늘」, 『언론학의 장래와 언론학 교육의 방향』, 한국언론학회, 1997. 1~6쪽. 한편 우리나라 언론학의 전개과정에 관련된 부분은 주로 서정우의 같은 글과 추광영의 「한국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 그 역사와 현재의 위치」(《신문연구소 학보》(서울대학교) 제20집(1983). 93~103쪽)에서 옮겨왔다.

12) 소피아대학은 독일에서 신문학을 전공한 일본 신문학의 개척자 고노 히데오의 강력한 영향 밑에 1932년에 창립되었다.

통과 미국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전통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여기서 독일의 공시학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래된 학문전통으로서 주로 '제1세대' 학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이후 세대는 거의 대부분 미국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전통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국내 언론학 교수 박사 학위 취득 나라별 분포에서 미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지만, 최근 국내 박사의 증가는 언젠가 독특한 한국적인 연구방법을 형성할 것이고 외국의 영향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 미국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한 소장학자들이 대거 귀국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매스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방송론, 국제 커뮤니케이션론, PR론, 인간 커뮤니케이션론, 대중문화론 등의 폭넓은 분야를 각각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영역에 수용시킴으로써 연구대상의 폭을 넓히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연구도 구미 학계에서 개발된 모델을 한국의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시켜 본다가나 흉내내는 모방적 연구단체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으며, 독자적인 이론정립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한국적 사회구조 속에서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발견해 내고 이를 다시 설명하려는 이론적 토착화를 위한 독자적 이론개발을 의도한 단계까지 발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198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상황은 한국의 인문사회과학계로 하여금 비판이론을 도입하게 만들었으며, 언론학 분야에서 실천적 지향을 대변해 온 한국의 비판 언론학 역시 이러한 진보학계의 전반적인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비판이론의 등장과 확산은 미국의 이론에 경도되어 있던 언론학의 식민성에 하나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으며, 동시에 많은 신진 연구자들이 미국유학 대신 국내를 선택, 우리 언론의 문제와 씨름하게 되는데, 이들이 중심이 된 한국사회언론연구회가 1988년 2월에 결성되게 된다. 이들을 통해 현실분석이라는 '구체로의 상승'을 놓고 학문적 타당성을 거둬볼 수 있는 생산적인 논쟁의 장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논쟁은 방법론 논쟁의 재연으로 출발하여 이론의 내적 적합성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 즉 한국의 특수한 사회구조를 설명하는 우리 나름의 이론들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비판이론이 주류 언론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언론의 문제에 보다 심도 있게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연구의 영역을 넓혀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점에서도 유럽의 이론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소개하고 적용하려 했던 경향이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언론학 분야 비판이론 연구의 식민성은 1980년대 이후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인접 사회과학 연구자들에 의해 유행처럼 소개된 외국의 이론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언론학 분야에 있어서 탈식민성 담론은 매우 산발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론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다. 초록자가 발견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신문학보》 제6집(1973)에 실린 김일철의 「한국커뮤니케이션 연구 방법론의 회고」로서, 이 글은 한국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의 관행에 대해 글쓴이가 갖고 있는 인상을 피력한 것이지만, 한국 언론학계 초기의 탈식민담론으로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커뮤니케이션학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학에 대한 방법론·접근방식 등을 둘러싸고 활발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으며, 또한 한국사회라는 보편성 속의 특수성 문제와 관련하여 현실 유관성 혹은 토착화의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그 예로 추광영은 한국 커뮤니케이션 학계의 자성적 목소리가 나타나는 부분<sup>13)</sup>으로서 '한국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가 미국 신문학의 아류에 불과한 상태이다',<sup>14)</sup> '외국에서 공부한 교수진에 의해 외국 용어와 기술이 여과과정이나 한국 현실에의 적응과정 없이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 자신의 언론가적 실천과 교육 체계가 탐구되어야 한다',<sup>15)</sup> '이러한 현상은 미국식 경험 실증주의와 구조기능주의적 방법의 절대시 경향에 의해 야기된 결과이다'<sup>16)</sup> 등을 언급하고 있다.

언론학 분야의 탈식민성 담론자로는 추광영, 김학수, 정대수, 오진환, 박홍수, 김재홍, 강상현, 이효성, 방정배, 김동민 등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겠다. 이들은 《현상과 인식》, 《사회비평》, 《언론과 사회》 등의 대중매체나, 한국언론학회의 《신문학보》, 한국사회언론연구회의 《한국사회와 언론》, 서울대학교의 신문연구소에서 나오는 《신문연구소 학보》 등과 같은 대학 내 연구논문집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한국언론학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데, 그 속에 탈식민성의 관점이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용해되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학 연구의 패러다임적 경향은 김학수의 글<sup>17)</sup>에서 발견된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학은 세 가지 흐름으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한국 언론학 연구가 서구 언론학의 관점들을 소개하는데 바쳐지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우리나라 언론학자들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미국식 개념들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미국 언론학자들이 실제 연구에서 다루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상황에 받아들이고 사용한다는 점이며, 셋째는 한국 언론학 연구가 역사적 연구뿐만 아니라 내용분석이나 조사방법을 사용하는 경험적 연구에서도 주로 서술적인데 그치고 설명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13) 추광영, 「커뮤니케이션학의 접근방법과 쟁점」, 《서울대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8권 제1호(1986. 8). 264~265쪽.

14) 이상희, 『권력과 언론』 정우사, 1983.

15) Oh Jin Hwan, "Foreign Influence on Korean Journalism Education", 《신문학보》 제20집(1985).

16) 방정배, 『자주적 말길 言論 言論構造變動의 辨證法』 나남, 1985.

17) 김학수, 「언론학 연구의 역사적 구조와 상황」, 《현상과 인식》 제9권 제1호(1985), 29~42쪽.

한국의 언론학 분야가 미국과 독일식 교육을 받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옴으로써, 창조성과 이론건설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한 결여로 이어진다. 즉 한국상황에 보다 적합한 개념들을 발전시키거나 창조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적 차원에서부터 언론학자들이 한국상황에 중요하거나 독특한 자신들의 개념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80년대 초부터 한국언론학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어 온 이러한 패러다임 논쟁은 1990년대에 들어 '불완전 해소'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강상현은 1980년대 국내 언론학계의 패러다임 논쟁은 외래 이론의 토착화 및 언론현상의 보편성과 한국언론 현실의 특수성을 접맥시키는 창발적 이론화를 이루어내기보다는 공세적 비판진영과 수세적 전통진영 간에 타방비난을 통한 자기정당화에 매몰된 시기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상황 의존적이고 외국 모방적이었던 국내언론학계의 패러다임 논쟁은 변화의 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sup>18)</sup>

이러한 글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대안은 이런 식이다. 우리의 언론현실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구미의 이론을 우리의 언론현실에 맞게 검증하면서 변용시키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강준만을 빠뜨리고는 언론학 분야의 탈식민담론을 다 이야기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언론운동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언론운동에 관한 서양의 문헌들을 나름대로 꽤 섭렵해 왔지만, 서양과 한국은 너무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실천하고 스스로 이론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어서 그는 “서양의 지식을 수입하는 건 ‘재충전’이고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고민하면서 스스로 이론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는 ‘소모’란 말인가? 아니면 엄격한 학술논문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형식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건 무조건 소모란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이론적 뿌리를 외국에 두고 있으면서 그걸로 우리 현실을 무조건 규정하려는 시도를 ‘기지촌 지식인’의 행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인물과 사상』 시리즈는 앞에서 살펴 본 다분히 반성문의 성격이 짙은 지금까지의 탈식민성 담론의 한계를 뛰어 넘어 구체적인 실천의 단계까지 나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초록자가 언론학 분야의 대표적인 탈식민담론자로 그를 주저 없이 꼽는 이유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의 여러 저작 중에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단행본 시리즈 『인물과 사상 1-10』 만을 초록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언론학 분야의 탈식민담론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회과학의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폭넓은 논의를 전개시키지는 못했으며 그 양도 많지 않다. 따라서 이에

18) 강상현, 「한국 언론학 연구동향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최근의 패러다임 논쟁과 그 불완전 해소를 중심으로」 《사회비평》 제10호(1993), 122~153쪽.

대한 패러다임 논쟁은 불완전 해소의 상태에 머문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V. 한국 언론학 분야 탈식민성 담론 초록

김일철, 「한국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의 회고」  
(《신문학보》 제6집(1973), 62~68쪽)

이 글은 한국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의 관행에 대해 글쓴이가 갖고 있는 인상을 피력한 것이지만, 한국 언론학계 초기의 탈식민담론으로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글이다.

우선 글쓴이는 우리나라의 커뮤니케이션학도 다른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학문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로 인해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의 이 분야 연구는 더욱 외국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제에서 글을 출발시키고 있다. 다행히 커뮤니케이션학의 경우 인접 과학인 사회학이나 심리학에 비하여 역사적 연구가 일찍부터 착수되었으며, 그것이 이 분야 학문발달의 방향과 토착성을 유지시켜 주는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하더라도 한국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아직도 외국이론의 도입·소개에 너무 집착되어 있는데, 글쓴이는 그 원인으로 현실에 바탕을 둔 문제의식이 역사적 안목과 과학적 이론의 무장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이 양자가 모두 부진한 것을 들고 있다. 즉 적어도 한국사회의 현실과 발전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각도에서 이론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소수의 이론적 논문마저 외국이론의 일방적 도입과 소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학문이 보다 토착적인 지향을 강력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외국의 대학원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연구하고 돌아온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교수들의 교육적 배경이 학문 관심의 일관성과 토착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의 확장과 함께 외국의 이론을 보다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한국사회의 독특한 현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를 잡을 것과, 방법론 자체에 대한 훈련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추광영, 「한국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 그 역사와 현재의 위치」  
(《신문연구소학보》(서울대학교) 제20집(1983), 93~103쪽)

이 글은 1983년에 씌어진 것으로 당시 한국 신문학이 있기까지의 지나온 역사를 편년식으로 개관하고 그 시점에서의 한국신문학계의 연구동향을 간략히 분석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역사적 발전을 1945 - 1962년을 형성기로, 1963 - 1970년을 경험주의의 도입기로, 그리고 1970년 이후를 학문적 도약기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으며, 제2장은 한국 신문학 연구의 현황을 매스컴 이론, 저널리즘 연구, 역사연구, 국제 커뮤니케이션 연구, interpersonal communication 또는 human communication 연구, Publizistik학 연구 등과 같은 7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 다음 제3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다.

이 글에서 언론학의 탈식민담론과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대목은 한국 언론학에 대한 글쓴이의 다음과 같은 인식이다. 글쓴이는 1970년대 들어 한국 신문학의 연구추세가 보다 균형적이고 다채로워 졌지만 그와 같은 연구도 구미 학계에서 개발된 모델을 한국의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시켜 분다거나 흉내내는 모방적 연구단계를 벗어나는 것은 못되었으며, 독자적 이론정립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 사회구조 속에서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발견해 내고 이를 다시 설명하려는 이론적 토착화를 위한 독자적 이론개발을 의도한 단계까지 발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글은 한국 언론학의 시기별·분야별 연구현황을 분석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반성의 기운이 부분적으로나마 엿보인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기운이 본격적인 탈식민담론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도 탈식민담론의 한 범주에 포함된다.

김학수, 「언론학 연구의 역사적 구조와 상황」  
(《현상과 인식》 제9권 제1호(1985), 29~42쪽)

이 글에서 글쓴이는 한국언론학 연구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나라 언론학 연구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연구 경향과 대표적인 연구 논문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학 연구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글쓴이는 우리나라의 근대 언론과 언론학이 외국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형성된 사실에 주목한다. 1984년 현재 박사학위를 소지한 국내 언론학 교수의 75퍼센트 이상이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실을 들어 우리나라 언론학 연구가 외국(특히 미국, 독일)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1980년 이후에 생산된 언론학 분야 연구 논문들의 연구 경향에서도 한국 언론학이 미국, 독일 중심의 대중 커뮤니케이션 연구 전통에 크게 영향받았음을 밝혀낸다.

그리고 80년부터 84년까지 언론학의 13개 연구 분야에서 행해진 주요 연구들을 소개하고 한국의 언론학이 가지는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한국언론학 연구가 서구 언론학

의 관점들을 소개하는데 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언론학자들이 사회화, 비행, 대치, 대중 문화, 이미지, 명예훼손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미국식 개념들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미국 언론학자들이 실제 연구에서 다루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의 현실에 적용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한국언론학 연구가 역사적 연구뿐만 아니라 내용 분석이나 조사 방법을 사용하는 경험적 연구에서도 주로 서술적인 데 그치고 설명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언론학은 창조성과 이론건설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결여하고 있으며 개념적 차원에서부터 언론학자들은 한국 상황에 중요하거나 독특한 자신들의 개념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글을 통해 글쓴이는 우리의 언론학 연구는 우리 현실에 맞는 나름대로의 개념과 이론을 발전 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론학자들이 더욱더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잘 이해하고 나아가 세계 언론학 연구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정대수,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의 반성과 새로운 접근의 모색」  
(《신문학보》 제19호(1985. 5), 87~107쪽)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비판적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비판적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검토한 다음, 비판적 연구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문제의식에 비추어 한국적 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어떠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며, 앞으로 연구방향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찰한 것이다.

글쓴이는 한국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 기능주의적 경험적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미국식 접근방법을 독창적으로 수용하였거나 연구영역을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모방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점을 들고 있다. 즉 방법론과 개념의 틀뿐만 아니라 연구대상과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의식 자체를 배워옴으로써, 한국에 있어서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는 기본적으로 미국적인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이루어져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변화과정과 관련한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특유한 전통과 정치·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변화과정을 겪어 온 우리 사회에 미국에서 발전된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적합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한국적 특수성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를 위해서 변화과정과의 관련 아래서 매스미디어의 역할문제를 연구과제로 설정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Oh Jin Hwan, 「Foreign Influence on Korean Journalism Education」  
(《新聞學報》(韓國言論學會) 제20호(1985. 9), 19~33쪽)

이 글은 언론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언론학 교육에 있어서 외국의 영향을 짚어 본 것이다.

글쓴이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저널리스트가 미국의 언론직에 종사하는 것이 최적이듯이, 한국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한 사람이 한국 언론에 가장 적격이라는 전제에서 글을 출발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미국에서 미국 언론을 위해 교육받은 저널리스트들은 한국의 언론에는 그렇게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 나라의 문화적 유산과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결여가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며, 각 나라에는 고유의 철학과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나라든지 방법론이나 기술은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이론의 적용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 언론학 교육의 역사를 살펴본 다음, 언론학 교육에 있어서 외국의 영향을 교수와 교육자료, 언론 현실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한국 언론학은 열성적으로 외국의 사상과 기술을 신중한 여과과정 없이 그대로 흡수해 왔는데, 여기에는 미국 이론이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과 언론학의 개념과 용어들을 자유롭게 빌려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한국의 언론학과 언론학 교육에 일반적으로 행해져 왔던 것이다.

한편 한국 언론학 교육은 미국, 일본, 독일로부터의 분별없는 도입은 지양하면서 특수한 한국 상황과 현상에 기초한 진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은 한국의 교수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으며, 언론 현실 역시 외국에서 훈련받은 언론인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모든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실체는 한국 사람과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그 자체의 요구에 기초해야만 할 것이라라는 말로서 결론짓고 있다.

추광영, 「커뮤니케이션학의 접근방법과 쟁점」  
(《서울대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8권 제1호(1986. 8), 243~272쪽)

1980년대 들어 한국의 커뮤니케이션학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학에 대한 방법론·접근방식 등을 둘러싸고 활발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으며, 또한 한국사회라는 보편성 속의 특수성 문제와 관련하여 현실 유관성 혹은 토착화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글쓴이는 이러한 움직임을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대상분야와 그 가능성을 넓히려는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한 것으로서 전통적 커뮤니케이션학의 발전과정과 연구대상 그리고 방법론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들과 함께 대안적 접근방식들을 개관함으로써 커뮤니케이



선학의 현 위치를 조명하고 아울러 한국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진로와 방향설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해본 것이다.

이 글은 크게 ① 신문학의 형성과정, ② 전통적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대상과 그 방법론, ③ 전통적 연구의 비판과 대안적 접근방법, 그리고 ④ 한국 커뮤니케이션학의 쟁점과 과제 등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탈식민성 담론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네 번째 부분이다.

글쓴이는 한국 커뮤니케이션 학계의 쟁점으로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학문 또는 방법론의 토착화에 관한 논의의 두 가지로 집약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한국 커뮤니케이션 학계의 자성론으로서 한국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가 미국 신문학의 아류에 불과한 상태이다(이상희), 외국에서 공부한 교수진에 의해 외국 용어와 기술이 여과과정이나 한국 현실에의 적응과정 없이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 자신의 언론가적 실천과 교육 체계가 탐구되어야 한다(오진환), 이러한 현상은 미국식 경험 실증주의와 구조기능주의적 방법의 절대시 경향에 의해 야기된 결과이다(방정배) 등의 발언을 예로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커뮤니케이션 학계의 시급한 과제의 하나로서 가설 연역적인 미국식 경험 실증주의가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오랫동안 군림해 온 이론적 편중증을 생산적으로 극복하여, 이론적 또는 방법적 복수주의를 구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제도 및 구조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흥수, 「한국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미국의 영향」

(『한국과 미국 3 - 사회·문화관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189~222쪽)

글쓴이는 이 글에서 한국 방송에 대한 외국의 영향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이 대체적으로 이론적, 추상적 수준에 머물렀음을 지적하고 나름대로의 두 가지 창의적인 접근법을 통해 한국 방송에 미친 미국의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그 중 한가지는 우리나라의 방송기술체계가 미국의 지배적 영향하에 있는 것은 분명 역사적 연원을 지닌 누적적 결과라는 생각에서 한국 방송의 발전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KBS 방송국의 방송장비 현황 분석을 통해 수량적으로 미국에의 기술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글쓴이는 국가간 매스미디어 영향 관계에 대해 발전론적 시각과 종속론적 시각으로 나누어 이론적 배경을 소개한다. 그리고 한국 방송의 발전과정에 미친 미국의 영향을 라디오 방송체계와 텔레비전 방송체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여기서 우리나라 방송체계에 미국식 편성 경향, 미국식 제도와 조직, 미국식 기술과 시설이 들어오는 과정과 그 영향을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10년 동안 한국 방송장비의 실증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미국의 영향

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경험적 자료를 마련한다. 여기서는 촬영장비, 편집 및 녹화장비, 증계기, 송신장비, 음향장비의 연도별 국가별 도입 실태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글쓴이는 외화의 편성문제 등 부분적으로 문화종속론적 시각에 입각해서 미국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 방송에 미친 미국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발전론적 시각에 입각해서 그 영향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실증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 방송에 미친 미국의 영향을 잘 분석하고 있지만 문화유입이라는 관점에서 깊은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듯하며 국가간 문화종속에 관한 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재홍, 「신문학연구의 회고와 전망」  
(《사회과학연구》(경북대학교) 제4집(1988. 12), 89~98쪽)

이 글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기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흐름과 방향을 먼저 짚어 본 다음, 1960년대 이후 연구 분야의 확산과정을 살피고 있으며, 이어서 한국 신문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밝힌 글이다. 물론 이 중에서 초록자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 마지막 장이다.

이 글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이며, 1963년 서울대학교에 신문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사회과학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 들어 미국에서 돌아온 연구자들에 의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모델 그리고 보다 세련된 연구 방법이 도입되어 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으며, 아울러 대상의 폭도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글쓴이는 이러한 현상이 미국학계에서 개발된 이론이나 방법론의 도입과 소개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러한 모델을 한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모방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진단과 함께, 한국이라는 사회구조 속에서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발견해 내고 이를 다시 설명하기 위한 독자적인 이론개발의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미국의 역사적·사회적 숙명을 등에 업고 그들 나름대로의 필요에 의해 출발한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성과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의 커뮤니케이션 상황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연구관심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국 및 한국인의 생활과 문화의 현황과 장래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저널리즘을 어떻게 연관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와 같은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실증적인 사회과학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한국 언론학연구 30년 - 성찰과 전망』  
(나남, 1990)

한국언론학회는 1989년 10월에 「한국 언론학 연구의 성찰」이라는 주제로 학회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언론학회 안의 10개 연구회가 해당분야의 연구성과를 성찰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책은 이 때 논의되었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10편의 논문과 토론내용을 묶은 것이다.

이 책에서 탈식민성 담론과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부분은 오두범의 「한국커뮤니케이션 이론 및 방법론 연구의 성찰」과 이상희의 「비판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김동진의 「한국 방송연구 30년의 시대적 경향과 그 성찰」 등으로서 이 중에서 오두범의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오두범의 글은 한국 커뮤니케이션 이론 및 방법론 연구의 전개과정을 개관한 다음 그 전개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진행방향 등을 평가한 것이다. 이 글에서 오두범은 한국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의 주류는 미국식의 경험주의적 방법으로서 주로 실증적 방법(특히 서베이 조사)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한다. 이 글이 제시하는 한국 커뮤니케이션 이론 및 방법론 연구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많은 논문들이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문헌연구는 많은데 실증적 연구는 너무 적다는 점, 셋째는 이론연구에 편중하고 방법론의 연구에 소홀하였다는 점, 넷째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외국이론의 소개에 그치고 그 이론에 대하여 문제점이나 의문을 제기하기보다 그것을 맹신하거나 앞다투어 새 이론을 쫓아가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다섯째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회적이고 일과적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분야의 당면과제는 한국적인 이론의 구축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론적인 발상의 단계부터 한국적이고 독자적이어야 하며 외국에서 발상된 이론이라도 깊이 연구하여 토착화를 시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실린 논문들은 지난 30년간 언론학의 각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들을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한 내용들로서 한 세대에 걸친 연구성과를 성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포스트’ 시대의 비판언론학』  
(《한국사회와 언론》 제1집, 한울, 1992)

이 책은 비판언론학을 지향해 온 한국사회언론연구회가 발간하는 반년간 학술지 《한국사회와 언론》의 창간호로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비판언론학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이효성의 「비판언론학의 새로운 성찰을 위하여」와 임영호의 「수

정주의적 전통과 한국의 비판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두 꼭지이다.

1980년대를 전후한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상황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사적 진행을 한국의 인문사회과학계에 도입하게 만들었으며, 언론학 분야에서 실천적 지향을 대변해 온 한국의 비판언론학 역시 이러한 진보학계의 전반적인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성장해 왔다. 이러한 비판이론의 등장과 확산은 미국의 이론에 경도되어 있던 언론학의 식민성에 하나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으며, 동시에 많은 신진 연구자들이 미국유학 대신 국내를 선택, 우리 언론의 문제와 씨름하게 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1988년 2월에 결성된 것이 한국사회언론연구회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었던 소련과 동구의 붕괴로 진보 사회과학계는 혼란의 징후를 감지하게 되지만, 일정 정도 시일이 흐른 후 현실분석이라는 '구체로의 상승'을 놓고 학문적 타당성을 겨뤄볼 수 있는 생산적인 논쟁의 장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논쟁은 방법론 논쟁의 재연으로 출발하여 이론의 내적 적합성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 즉 한국의 특수한 사회구조를 설명하는 우리 나름의 이론들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책은 서구 이론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비로소 그 이론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었지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이론의 개발에는 아직 역량이 턱없이 모자랐으며, 한국적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현실연구에는 여전히 미완성 투성이인 아마추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강상현. 「한국 언론학 연구동향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최근의 패러다임 논쟁과 그 불완전 해소를 중심으로」  
(사회비평》 제10호(1993), 122~153쪽)

이 글은 1990년대 들어 국내 언론학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패러다임 논쟁 사례를 중심으로 80년대 초부터의 구체적인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그러한 논쟁이 안고 있는 특징과 문제점 등에 대해 그간 학계에서 제기되었던 주장들을 선별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리한 것이다.

글쓴이는 제2장과 제3장에서 '자유다원주의적 연구'와 '맑스주의적 연구'를 언론학 연구의 초기 양극화 모델로서 설정한 다음, 언론학 연구의 새로운 조류로서 '신수정주의적 연구'와 '신다원주의적 연구'를 설정하여 비교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에서 국내 언론학회 패러다임 논쟁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서 미국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던 기존의 구조기능주의적·경험실증주의적·정책지향적인 특성이 강한 전통적 언론학 연구가 한국사회의 특수한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 중심적인 외래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적용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의

지적 수요에 순응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는 점과, 그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반발적 대안으로 제시된 비판적 관점의 연구들 역시 결과적으로는 유럽 중심의 맑스주의적 외래이론을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과의 적합성 검토 없이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거나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글쓴이는 1980년대 국내 언론학계의 패러다임 논쟁은 외래 이론의 토착화 및 언론현상의 보편성과 한국언론 현실의 특수성을 접목시키는 창발적 이론화를 이루어내기보다는 공세적 비판진영과 수세적 전통진영 간에 타방비난을 통한 자기정당화에 매몰된 시기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상황 의존적이고 외국 모방적이었던 국내언론학계의 패러다임 논쟁은 변화의 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효성. 「언론학의 한국화를 위한 시론」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탐구 I: 커뮤니케이션이론 토착화』  
 (한국언론학회, 1993), 198~214쪽)

이 글은 우리 언론학의 지나친 서양 이론에 의존했던 관행을 반성하면서, 언론학의 한국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연구자의 작업과 자세 등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우선 글쓴이는 우리 언론학계가 안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로서 언론사와 같은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한국적 언론현상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다는 점과, 한국적 이론의 개발이나 발전을 볼 수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글쓴이가 말하는 언론학의 한국화 또는 한국적 언론학의 정립이라는 것은 한국적 언론현상을 그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한국적 언론 현실에 보다 적합한 이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언론현상이나 현실을 더 잘 설명하고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학의 한국화가 제기되지 못한 이유로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우리 언론학자들이 미국적인 것이 위세를 떨치는 풍토에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이론을 직수입하였으며, 비판적 언론학 역시 우리 현실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비판적 이론의 무비판적 수용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어서 한국적 이론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의 언론현실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구미의 이론을 우리의 언론현실에 맞게 검증하면서 변용시키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서 글쓴이는 한국적 언론 현실에 대한 기술적 연구와 구미 이론의 검증과 변용 및 개선, 그리고 한국적 언론학 개념의 발전 등을 들고 있다.

강준만. 『인물과 사상 1~10』  
 (개마고원, 1997. 1. ~ 1999. 4)

‘우리 사회에 언론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안은 출판의 언론화이다.’ 강준만이 ‘인스턴트 저널리즘’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저널리즘의 품위를 살리는 최상의 방법으로 책을 언론매체로 적극 활용하는 저널룩(journalook: journalism + book), 즉 잡지식의 책인 『인물과 사상』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그 첫머리에 한 말이다. 단행본 『인물과 사상』은 1977년 1월에 제1권이 나온 이후 평균 3개월에 한번 꼴로 시리즈 형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 시리즈는 ‘성역과 금기에 도전한다’는 모토 아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물에 대해 기록과 평가를 남기고, 토론과 논쟁이 없는 우리 사회에 토론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철저한 보상과 문책을 지향한다. 우리 사회가 기록과 평가에 인색한 이유로 그는 우리 스스로를 경멸하는 경향을 짚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지식인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데, 한국의 지식인들이 늘 외국의 지식인 이름만 주워섬길 뿐 국내 지식인들의 업적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에 ‘기지촌 지식인’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그의 글의 원동력은 분노다. 그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그 어떤 이유에서건 성역과 금기로 간주하거나 건드려도 직설을 피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을 하는 ‘악역’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또한 우리 사회의 진보를 방해하는 암적 요소에 대해 비판을 하고 독설을 퍼붓는 것은 비지성적이며 비생산적인 것으로 보면서 추상적인 학술사조나 이론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것을 품질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대안 중독증’에 대해서도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는 사과와 반성을 전혀 모르는 한국의 지식인 문화에도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있다.

그는 지금 우리의 언론·문화분야를 관철하고 있는 주된 원리는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북계의 카르텔’과 ‘검은 로비’와 ‘패거리주의’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걸 깨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제 그의 글을 탈식민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그의 논의는 그 자신이 ‘유학파’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탈식민성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그는 이러한 지향을 의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의 글을 조금만 관심 깊게 읽은 독자들이라면 그의 글 곳곳에 베여있는 탈식민의 관점을 충분히 발견해 내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의 하나로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이른바 ‘재충전’의 개념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재충전의 방법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인데 놀란다. 즉 선진국에 다녀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학문이 ‘수입’의 개념이며, 얼마만큼 선진국의 새로운 것을 빨리 수입해서 그것을 알리느냐 하는 것이 ‘학구적’이란 말을 들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언론운동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언론운동에 관한 서양의 문헌들을 나름대로 꽤 섭렵해 왔지만, 서양과 한국은 너무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실천하고 스스로 이론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어

서 그는 “서양의 지식을 수입하는 건 ‘재충전’이고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고민하면서 스스로 이론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는 ‘소모’란 말인가? 아니면 엄격한 학술논문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형식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건 무조건 소모란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이론적 뿌리를 외국에 두고 있으면서 그걸로 우리 현실을 무조건 규정하려는 시도를 ‘기지촌 지식인’의 행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인물과 사상』 시리즈는 앞에서 살펴 본 다분히 반성문의 성격이 짙은 지금까지의 탈식민성 담론의 한계를 뛰어 넘어 구체적인 실천의 단계까지 나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김동민,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평가와 새로운 과제」

(『98 한국언론정보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프레스센터 11층): 한국언론정보학회, 1998. 6. 20. 87~96쪽)

이 글은 그간 국내에서 행해진 미디어 정치경제학 연구를 중심으로 언론학의 식민성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것은 그 동안 소개된 비판이론들 중에서 정치경제학적 연구가 가장 문제를 많이 노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가 학문의 식민성을 굳이 거론하는 것은 외국의 이론을 배척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을 서두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글쓴이는 선진이론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인용하기, 베끼기, 짜깁기, 기계적 적용, 그리고 열등의식 등을 학문의 ‘식민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한국의 언론학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식민성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원래 실용적·정책적 응용학문으로 시작한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수입해서 전수하기에 바빴던 언론학자들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론구축보다는 정책연구에 몰두하였는데, 그 정책연구들에 식민성이 녹록히 스며들어 있다고 한다. 즉 한국 언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고유한 이론을 개발하기보다는 미국의 이론을 전수하고 적용하기에 바빴으며, 토양이 다른 곳에서 형성된 이론들을 전혀 다른 토양에 이식하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비판 커뮤니케이션 이론인데, 1980년대 비판 이론의 등장과 확산은 미국의 이론에 경도되어 있던 언론학의 식민성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미국유학 대신에 국내를 선택, 우리 언론의 문제와 씨름하게 됨으로써, 적어도 주류 언론학이 빠져있는 식민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마련된 셈이었다. 그렇지만 글쓴이는 비판이론 역시 학문적 성향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동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주류 언론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언론의 문제에 보다 심도 있게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연구의 영역을 넓혀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점에서도 유럽의 이론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소개하고 적용하려 했던

경향이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론학 분야 비판이론 연구의 식민성은 1980년대 이후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인접 사회과학 연구자들에 의해 유행처럼 소개된 외국의 이론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학문적 식민성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글쓴이는 전체적으로 비판이론 진영에서 식민성의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으며, 있었다고 해도 새로운 선진이론이 소개되는 초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출발과 모색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되었으며, 이제 우리의 이론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와 본문에 포함된 초록으로 대신함〉